

해운산업



트레보트 리서치 분석대로 IMO 탄소세 도입 중단 결정

산업분석

2025. 10. 20

treaboat@treaboat.com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채택 결정 1년 연기

유럽 메이저 선사들과 사우디 국영 선사 등 선주사들은 IMO 탄소 중립의 부당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결국 IMO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해운 탄소세 결정은 일단 중단되었고 1년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르다해서 해운 탄소세 도입에 찬성할 선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IMO 탄소중립에 대한 부결로 인해 글로벌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은 사실상 멈추게 되었다.

산업 전망

국제정세의 변화와 사라진 탄소중립의 정당성

트레보트 리서치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탄소중립은 국제평화조약에 불과한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를 침공하면서 세계 평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는 국제평화조약에 불과한 탄소중립은 찢어버리면 그만인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이 국제합의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유럽에서 중동으로 확산되었고 대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국가간 합의사항은 지켜질 가능성이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전히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심각하게 어두운이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선주들은 환경 운동가들이 아니다

LNG/메탄올/암모니아 등으로의 선박 연료 변화는 해운 산업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LNG 연료는 정기선박 중심의 제한된 시장에 불과하며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연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전세계 해운선사들은 모두 심각한 수익성 훼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노르웨이/사우디 등 메이저 선주사들은 IMO 규제는 공정한 해운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최근 강조했으며 ABS 대표 역시 친환경 연료 확보의 어려움을 IMO 규제의 비현실성을 강조했었다. 해운업의 기본 구조를 생각해보다면 친환경 선박의 허구성은 어렵지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